

步虛子研究와 國樂人生

張 師 勳

(서울대 名譽教授)

학문의 길

學問은 고달프고 외롭다고 하지마는 담벼락과 같이 꼭 막혔던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였을 때의 기쁨은 體驗하지 못한 사람은 알 까닭이 없다.

어떠한 問題를 해결하였을 때의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겹겹이 쌓였던 피로는 얼음 녹듯이 삭가시고 마는 것이다. 學問의 길은 바로 이러한 즐거움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金剛石도 닦아야 빛이 난다고 하는데, 日帝治下에 우리나라의 많은 俊才들이 빛을 발휘할 기회를 못 가졌듯이 鈍才인 筆者 또한 正常 코오스를 밟지 못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專門·大學으로 진학하는데, 오직 경제적인 與件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던 그 시절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多讀을 즐거움으로

三代 無識하던 상놈이 되고, 三代 有識하던 兩班이 된다는 우리의 格言이 있다. 배우지 않으면 남과 경쟁할 수 없고,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一日一卷, 多讀이 시작되었다.

良書의 선택도 없고, 精讀도 하지 않고, 指標

도 없이 줍주린 사람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배부르겠지 하는 心情으로 책이라 하면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 보는 것이었다. 餘裕 있게 썰어 보고 즐거움에 吟味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거의 猪突的인 讀破爲主였다.

누에가 뽕잎 먹듯이 어느 한 모퉁이서부터 征服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은 韓國의 文學書籍, 다음은 日本, 西洋의 순으로 기억된다.

제일 먼저 읽은 책은 朝鮮文學全集(古典小說)이었다. 春香傳, 沈清傳, 謝氏南征記 등 한국의 古代小說 및 歌詞集을 通讀한 것은 뒷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李光洙의 흥·異次頓의 死·無情, 沈蕪의 常綠樹, 李無影의 無影의 塔, 金東仁의 감자, 李泰俊의 달밤, 朴鍾和의 錦衫의 피, 李殷相의 無常, 方仁根의 魔都의 香불 등은 물론, 李孝石·金裕貞·李箱·蔡萬植·金南天·鄭芝溶의 詩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발표된 小說과 詩는 거의 다 讀破하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日本 文學으로서는 夏目漱石 全集 15卷을 비롯하여 菊池 寬 全集, 日本文學全集, 谷崎潤一郎·芥川의 作品, 심지어는 獅子文六 등의 유모어 小說까지도 거의 다 섭렵하였다.

西洋 文學으로는 50여 권에 이르는 世界文學全集을 빼지 않고 읽었고, 톨스토이 全集, 지드와 도스토예프스키의 作品, 探偵小說인 푸판

集 등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렇게 강그리 읽어 나가는 동안에 지루하고 괴로웠던 일이 생겼다. 예를 들면 夏目漱石이나 菊池 寛 全集을 2,3권만 읽어 내러가면 그 다음은 테마만 읽어도 그 小説이 어떻게 展開되리라는 점이 짐작되었고, 그렇게 짚여지니까 읽기가 싫어졌다. 읽지 않아도 뻔한 小説을 끝까지 義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世界文學全集 중에서 ‘罪와 罰’은 반만 읽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읽지 못한 作品 중의 하나이다. ‘罪와 罰’을 다 읽지 못하고 팽개친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에 한 권을 읽기로 작정한지라 밤을 새워 가며 책장을 넘겨야 했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描寫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老婆를 죽이는 場面에 이르러서는 讀者인 내 자신이 殺人者가 되는 듯한 錯覺에 소름이 끼치었다. 그도 한 밤중에 이 대목을 읽어 나가기에 그때 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책을 덮고 잠을 청하였고, 그 뒤 50년 동안 未完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逆境에서 오는 不平과 脫線을 어루만져 준 것은 ‘異次頓의 死’와 ‘湖畔의 각시’였고, 谷崎潤一郎의 대카당 小説과 도스토예프스키의 肝疾病 발작에서부터 깨어날 때까지를 描寫한 글도 平生 잊혀지지 않는 小説 중의 하나이다. 물론, 그 당시에 팽배하던 프롤레타리아 作品도 빠뜨리지 않았다.

專攻은 音樂인데 마치 文學靑年과 같은 生活을 한때나마 가져 보았고, 지금 回想해 보아도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읽었을까 하는 느낌이다.

目標을 지향한 讀書

20歲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니 思考와 判斷力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讀書의 傾向과 目標가 서서히 바뀌어져 갔다.

이 시절부터는 純小説에서 벗어나 지드의 ‘콩고紀行’, 後藤朝太郎의 ‘中國紀行’, 林語堂의 ‘北京歷日’과 같은 紀行文과 歷史物에 접근하게 되었고, 좀더 基礎學問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論理學·倫理學 등에 관한 著書를 거쳐 白南雲의 ‘朝鮮經濟史’, 맑스의 ‘資本論’, 멜더스의 ‘人口論’을 비롯 어려웠지만 열심히 精讀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英語 공부를 위하여 한 3년 동안 水標禮拜堂에 나가 바이블 原書講演에 참여하고(당시 미국 여자가 담당), 漢文 공부 욕심에 壽松洞 中東學校 남쪽에 있던 從皇寺에 가서 朴聖權 스님의 佛經 講讀과 수요일 밤의 金剛經 輪讀會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나의 人生을 결정 지은 步虛子

職場에서는 오로지 專攻인 國樂 文獻資料와 古樂譜의 蒐集 整理 내지는 筆寫하는 일로 시간을 배우었다. 杜甫와 屈原에 접하고 蘇東坡의 前後赤壁賦, 白樂天(居易)의 長恨歌와 琵琶行을 愛誦하고, 四書三經을 알건 모르건간에 읽어 본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 시기가 平生 學問의 길로 발을 들여 놓게 한 動機와 보이지 않는 힘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古樂譜를 수집(製本해서 33卷)하고 베끼는 동안에 高麗時代에 전래된 宋의 詞樂의 하나인 步虛子라는 曲調의 鄉樂化 過程과 이 曲에서 많은 派生曲이 생기고 그 파생곡이 현재까지 演奏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래서 論文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 논문이 脫稿된 것은 筆者가 26살 되던 해였다.

初稿는 日文으로 작성되었고, 解放과 더불어 다시 改稿하여 發表의 機會를 기다리다가 6·25 戰亂을 겪었다. 1·4후퇴로 釜山 피난 때는 배낭 속에는 몇 가지 옷에 담요 하나와 이 步虛子에 관한 原稿 뭉치밖에 없었다. 만일에 이 ‘步虛子와 그 派生曲’이라는 論文을 쓰지 않았더라면 國樂研究로 平生을 바치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 논문은 1954년 ‘崔鉉培先生回甲記念論文集’에 처음 발표되었고, 그 후 수십편의 論文을 발표하였지만, 1968년 서울大學校에서 받은 文學博士의 主論文이 ‘步虛子와 그 派生曲’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奇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步虛子라는 散詞는 尾前詞와 尾後詞의 二段으로 되고, 음악적 형식은 尾後詞의 첫째 句만 尾前詞(前段)의 첫째 句의 가락과 달라지고 그 둘째 句 이하는 尾前詞 둘째 句 이하의 가락과 동일하다. 音樂 專門用語로는 尾後詞 첫째 句의 가락을 換頭라 하고 둘째 句 이하의 가락은 還入이라고 한다.

還入은 우리 말로 ‘도들이’(反復의 뜻)라고 한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에 傳承되고 있는 음악 가운데에는 ‘還入’ 또는 ‘도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곡조 이름이 많다. 이와 같이 ‘還入’ 또는 ‘도들이’라는 명칭을 가진 曲調와 步虛子 尾後詞의 換頭와 還入 가락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을 明快하게 解決한 論文이 바로 ‘步虛子와 그 派生曲’에 관한 내용이다. 高麗 때 宋에서 들어온 步虛子가 宣祖 이후로 鄉樂化되고,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 향악화된 步虛子에서 다시 尾還入(밀도들이)·細還入(잔도들이)·兩淸還入(兩淸도들이)·羽調加樂還入(羽調 가락도들이) 등 많은 曲이 파생된 과정과 그 變調方法에 이르기까지 證明되었다.

1942년, 처음 發表했을 때는 돌보지도 않던 이 學說이 이제 와서는 움직일 수 없는 定說이 되었고 모든 國樂徒들간에 特定人의 學說이라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거의 常識化되고 있는 형편이다.

앞에서도 言及하였거니와 이 ‘步虛子와 그 派生曲’(뒤에 步虛子論攷로 改稱함)의 論文은 나의 人生을 國樂으로 결정짓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연과 체험이 있기에 나는 가끔 後學들에게 이러한 忠告를 곧잘 하는 편이다.

“첫 論文이 견실하면 後續論文이 모두 짜임새가 있을 것이고, 첫 논문이 허술하면 百篇의 論文이 모두 허술할 可能性이 있다.”

조금 지나친 表現 같기는 하지만 70이 된 이 나이에든 변함이 없는 所信이다. 이 말은 치밀하고 실증적인 學究와 겸허한 學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學問은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요령으로 얼버무릴 수도 없는 것이다. 내가 첫 論文을 중요시하는 理由는 學問에 임하는 그 사람의 精神의인 바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쓴 글에는 內實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學問을 하려면 고삐를 한시도 놓아서는 아니 되고, 가끔 미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日本 學者 한 분은 筆者에게 “당신은 잠을 언제 자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잠은 충분히 잔다. 다만 한시도 고삐를 놓지 않을 뿐이다.

習慣과 재주에 따라서 差異가 있겠지만, 하루에 論文을 40~50枚씩 쓴다는 본도 있다. 단숨에 40~50枚씩 써 내려간 글 가운데에는 허술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筆者의 경우, 한 篇의 論文을 쓰자면 資料整理 30%, 생각하는 시간 40%, 글 쓰는 시간 30%의 比率로 잡고 있다. 資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過程이라고 하겠다. 언젠가 말한 바와 같이 筆者는 하루에 5枚 平均으로 잡고, 그 미신 쉬지 않는다는 信條로써 살아간다. 하루 평균 5枚이면 한 달이면 150枚, 1년이면 1,800枚의 계산이 나온다. 1,800枚면 插圖·統計資料·寫眞 등을 합쳐 충분히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진다.

筆者가 1973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년에 한 권 꼴로 著書를 내게 된 原動力도 바로 이러한 方針이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著書의 內容이 충실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프로그램대로 實行에 옮겨 본 것이다.

1973년 : 時調音樂論

1974년 : 黎明의 東西音樂

1975년 : 國樂概論(共著)·韓國傳統音樂의 研究

1976년 : 國樂總論·韓國音樂史

1977년 : 韓國傳統舞蹈研究·國樂의 歷史

1980년 : 河圭一 林基俊 傳唱 十二歌詞

1981년 : 韓國傳統音樂의 理解

1982년 : 花前態와 花柳態·國樂器의 傳統的인 演奏法(Ⅰ)·世宗朝音樂研究

1983년 : 國樂史論

1984년 : 國樂大事典·韓國舞蹈概論

1985년 : 쉬운 國樂理論·最新國樂總論(國樂總論 改訂增補版)·國樂文獻資料集成 一朝鮮王朝篇一

이와 같이 '78년과 '79년에는 國樂大事典의 執筆관계로 공백이 생기었다.

1975년은 筆者의 나이가 60歲 되던 해였다. 남들은 60이 넘으면 편히 쉬면서 즐긴다고도 들었는데, 내 경우는 반대로 60이 넘은 후에 쉴 겨를이 없었다. 家事도 돌보지 않고, 아내와 旅行 다니면서 즐길 줄도 모르고, 世事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한 10년 살다 보니, 아내가 疔瘡 病이 나서 한 달 가까이 入院中이다. 아차 너무했구나 하고 마음 아파해 봤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위하여 즐겨 보리라 하고 다짐해 보기도 한다.

軍政廳 編修局에서의 하루하루

칼 출을 따라 가다 보니 잔소리가 되고 말았다. 그럼 다시 1945년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8·15 해방이 될 때까지 나는 강제 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太白山속 깊숙이 들어가서 몸을 보전하고 있었다. 解放이 되던 날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직접 愛國歌를 지휘하고 萬歲三唱을 목이 터지라고 외쳤다. 愛國歌를 지휘하던 그 때의 感激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解放은 됐고,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 벅찬 기쁨과 희망을 안고 누가 부른 듯이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建準이니 人共이니 하여 싸움질만 하고, 建準의 빛깔도 심상치 않았다.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하는 단결된 행동에 앞서 政治的 체계모니와 사상적인 對立 내지는 派黨 싸움으로 흠탕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두 달 동안 敦岩洞 한적한 곳에서 바둑으로 머리를 식힌 뒤 내가 잘 길이라고 판단한 軍政廳編修局에 몸을 담기로 하였다. 거기에서 崔鉉培·李乘岐·張志暎 선생을 모시게 되었고, 崔載濬·辛東燁·朴昌海·李相鮮과 같은 少壯學者들과 交遊하게 되었다. 筆者의 소속은 처음에는 國史部門이었고, 뒤에 翻譯課로 옮겨 張志暎 선생을 모시고 일을 하였다.

이 시기는 各層各界의 많은 學者들과 접하면서 學問의 길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희망에 부풀었던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內容이지만 1948년에 處女出版한 '民謠와 鄉土樂器'는 編修局 재임시에 집필된 것이고, 1969년에 발간한 '韓國樂器大觀'의 初稿도 그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國樂史料의 拔萃 作菜은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섭렵한 古典은 다음과 같다.

- ① 朝鮮史 第一編 第三卷 支那史料中에서 國樂關係史料 拔萃
- ② 三國史記
- ③ 三國遺事
- ④ 宣和奉使 高麗圖經
- ⑤ 日本書記
- ⑥ 高麗史節要
- ⑦ 東國通鑑
- ⑧ 東文選
- ⑨ 破閑集
- ⑩ 補閑集
- ⑪ 益齋集
- ⑫ 疋言覺非
- ⑬ 東人詩話
- ⑭ 燃黎室記述
- ⑮ 燕巖集
- ⑯ 經國大典
- ⑰ 大典續錄
- ⑱ 大典通會

이상 말해한 國樂史料는 4卷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는데, 6·25動亂을 겪고도 다행히 남아 있어 지금도 소중히 保管하고 있는 記念碑的인 記錄 중의 하나이다.

1·4後退 때 남겨 놓고 간 살림과 冊子를 다 들어가면서도 막 풍이에 영성하게 製册한 史料集을 남긴 것은 아마 돈의 값어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收復 당시에 없어진 資料 일부는 阿峴고개에서 東國大學 教授의 손을 거쳐 圖書館에 들어간 것도 있고, 筆者의 號인 '琴圭'라는 도장이 찍힌 筆寫本이 더러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傳聞하고 있다.

94
60
200
564
5640

최초의 敎授生活과 성과

1954년 12월부터 德成女大에서 최초로 둔 國樂科를 위하여 그 準備作業을 했고, 1955년도부터 新入生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작은 大學은 學生도 적고 經營이 어려워 2년만에 廢科하게 되었고, 1959년에 신설된 서울大 學校 音大 國樂科에 몸을 담게 되었다. 이로부터 나의 國樂敎授 生活은 本格化된 것이다.

草創期的 國樂科 志望生은 대부분 第二志望生으로 定員을 채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大學校 1학년부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隔世之感이 있다.

그 당시의 國樂科 學生들은 趣味도 없고 다만 서울大 學校에 籍을 두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죽지 못해 끌려오는 것이었다. 演奏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指揮者가 指揮棒을 들어도 자기가 타는 악기의 손 짚는 자리를 찾는 바람에 指揮棒에 따를 여유조차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學生들을 훈련하던 당시의 敎授의 心情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李惠求 博士가 몽둥이를 들면 筆者는 웃으며 學生들을 감싸고 필자가 가혹하게 다루면 李惠求 博士가 微笑作戰을 펴는 등 草創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는가! 그러니까, 1·2·3·4회까지가 國樂科의 成敗를 가름하는 시기였다.

불과 20년 전의 일이지마는 호랑이 담배 먹던 아득한 옛날 이야기와 같다. 그러나, 현재 國樂科가 있는 大學만도 12個校에 이르고, 서울특별시립 國악관현악단·국립국악원 관현악단·KBS 國악관현악단·부산시립 國악관현악단·대구시립 國악관현악단·광주시립 國악관현악단·대전시립 國악관현악단·청주시립 國악관현악단 등 많은 연주 단체가 있고, 國樂科 專任 이상의 교수만도 약 50명에 이른다.

더우기 초창기에 있어서 몽둥이를 들고 두드리고, 달리고, 설득하고, 희망을 주면서 길러 온 1·2·3·4회 國樂科 卒業生은 한결같이 각 대학의 中堅 敎授로 國樂의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大學校	敎授	李在淑 (1回)
서울大學校	副敎授	金靜子 (2回)
서울大學校	助敎授	李成千 (3回)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副敎授	崔鍾敏 (4回)
漢陽大學校	副敎授	金溶鎭 (1回)
漢陽大學校	助敎授	權五聖 (1回)
하와이大學校	副敎授	李秉元 (2回)
嶺南大學校	敎授	宋芳松 (3回)
서울시립大學	副敎授	韓明熙 (2回)
慶北大學校	助敎授	金德煥 (3回)
서울藝專	副敎授	趙在善 (4回)
梨花女子大學校	副敎授	金善漢 (4回)
檀國大學校	專任講師	李相龍 (4回)

(1985년 12월 현재)

그러니까, 5期生 이하의 교수와 大學校 講師까지 합치면 백여 명의 졸업생이 각 대학에서 國樂敎育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남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구더분한 이야기까지 끌어내느냐 하고 핀잔 출지는 몰라도 筆者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人生의 보람이요, 자랑스러움이기 때문이다.

國樂科를 설치하고 國樂敎育을 실시한 지 불과 25년에 지나지 않지마는 적어도 藝能系에서는 어느 학과에 못지 않게 長足の 발전을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西洋音樂科·舞踊科·體育科·美術科·工藝科·衣裳科 등 많은 藝能系學科가 解放 직후부터 먼저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들 학과보다 10여 년 뒤늦게 출발한 國樂科의 成果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확신한다.

國樂科 出身들은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럼으로써 國樂學 定立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李惠求·張師助의 著書만도 수십종에 이르고, 서울大 學校 後輩들에 의하여 발표된 著書도 近 10種에 이른다.

國樂을 비난하는 사람들

洋樂家의 一角에서는 言必稱 國樂에는 理論이 서 있지 않고, 동일되어 있지 않다는 등 放言을

하는 事例가 더러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反問하고 싶은 心情이다.

洋樂하는 당신네들의 이론은 당신 자신이 세운 이론이요, 아니면 西洋 사람이 해 놓은 이론을 자기의 것처럼 옮기는거요 하고 묻고 싶다.

또한, 學問이라는 것은 劃一的으로 통일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學說이 발표되고 거기에 共感하는 이가 많게 될 때는 우선 그 學說로 通用되다가 이보다 더 훌륭한 學說이 나오면 다시 正正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學問의 길이요, 또 학문은 그러는 동안에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政治人들의 協議會도 아니고 政策的인 國語의 맞춤법이 아닌 이상, 學問에 있어서의 統一은 言語道斷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學

問의 本質을 모르는 所致도 있겠거니와 간접적으로 國樂教育 實施를 방해하는 底意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지난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하여 한 全大統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즉 全大統領은 “文化는 한 民族의 生命力的 원천이며 興亡盛衰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한 다음,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부정하는 策動과 外來文物的 무차별적인 侵透, 그리고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등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슬기를 우리가 쌓아온 文化的 底力과 資産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否定하는 音樂教育者는 용서받을 수 없다. *